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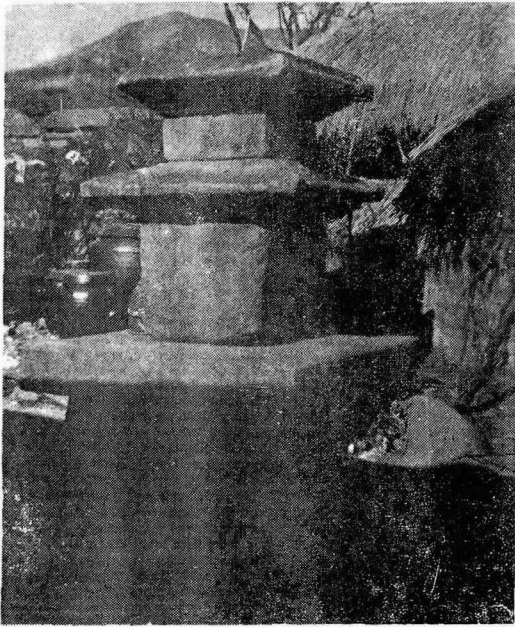
安城 竹山の石塔

崔 成 鳳

竹山에는 現在까지 調査된 바에 依하면 十一基의 石塔中 七基는 이미 「考古美術」二一七·六―七七에 紹介되었고, 七二年에 들어서 새로 調査한 四基의 石塔과 佛臺座를 여기에 紹介하겠다.

一、竹山里 西部 三層石塔

原位置로 보이며, 現 竹山里 五―三番地 鄭洋五氏宅 뒷뜰에 있다. 道路邊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음은 民家에 가려서였다.



地臺石은 缺하고(埋沒?), 낮은 二枚로 된 中石 위에 一枚의 甲石을 올려 놓았다. 現在 二層이며 第三層 屋蓋石은 그 옆에 떨어져 있고, 第三層 塔身이 잘 보이지 않는다.

初層 塔身은 側壁一部에 隅柱를 새겼으며 희미하다. 二枚石으로 되어 左·右壁을 삼고 있다. 南側의 것이 크고 北側의 것이 좀 작다.

屋蓋石은 四級이며, 一層부터 三層까지의 一邊이 各各 四尺―三·四尺―三·二尺이다.

各層 塔身은 一層부터 高二·二尺, 幅 一·四尺 高七·五寸 幅 二尺이며, 甲石 一邊이 五尺二寸六分이다. 原狀 復舊 可能함.

花崗岩製 高麗中―末葉

二、竹山里 中部 三層石塔

原位置가 아님. 現在 竹山里 四四―一番地 金載雄氏宅 뒷뜰에 있음. 原來 塔의 原位置는 南山이었으며 日帝時 이 집에 살고 있던 日本人이 옮겨 놓은 것이라 함.

現在 塔은 四級屋蓋石 二枚와 塔身 一個를 가졌다. 제대로 쌓아 올리지 못하였다. 下層 屋蓋石의 一邊이 三尺五寸六分이다. 上層 屋蓋石은 二段의 塔身받침이 있고 上部 中央에 深約 六寸의 圓形擦孔이 있다. 塔身 木 흐름面이 坎로 窪은 듯이 곱다. 塔身과 屋蓋石이 맞지 않으며 上層 屋蓋石에 相輪部를 얹힌 擦柱孔이 있는 것으로 보아 第二層 屋蓋石이 缺한 것으로 보인다.

三、竹山里 東部 三層石塔

原位置가 아님. 現 竹山里 四四七番地 梁承先氏宅 뜰안에 있음.

一層 塔身(高 三·六cm, 幅 四·五cm)은 九·五cm의 遇柱를 가졌고 그 위에 塔身 없이 屋蓋 二枚를 겹쳐 올려 놓았다. 屋蓋石은 無級이며 落水面이 맞닿다. 屋蓋石의 一邊이 八·〇cm, 二層 一邊이 六·七cm이다. 그 위에 高三·五cm의 相輪石을 가졌다. 手法이 特異하다. 花崗岩製.

四、竹山里 梅谷里 塔址

原位置로 現 竹山里 三八三番地 李在喆氏宅 뒤뜰에 있으며, 現在 地帶石이 제자리에 남아 있다. 各邊이 一八六cm—一八五·五cm이며 中央에 中石을 세웠던 자리로 추측되는 자리의 一邊이 七八cm이다.

〔註〕 「一九三七年頃 日帝時, 當時 地主인이었던 方基茂氏가 日人에게 番七斗落款을 받고 팔았다고 함」 現 竹山小中學校에 근무하는 俞德根氏의 말. 現 四一歲. 塔의 行方이 現 서울塔洞公園에 옮겨졌다는 說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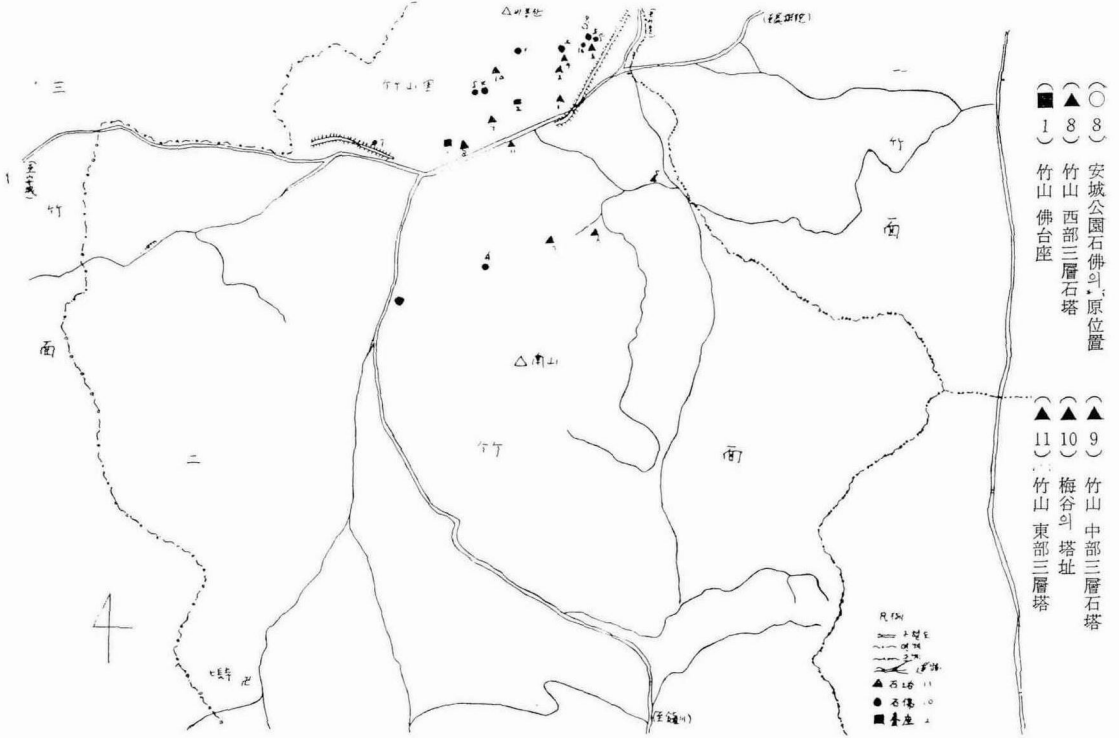
五、竹山里 西部 佛臺座

原位置로 現 竹山里 五一七番地 禹炳喆氏宅 뒤뜰에 있으며, 竹山里 西部 三層石塔 바로 西北쪽 十餘m에 位置한다.

臺座는 上·下層 포개어 二石으로 되어 있으며 高三尺三寸 直徑이 五·五尺이다.

下層은 八角으로 되어 高肉調의 부蓮花를 새겼으며 一邊이 二·八尺이며 一段의 上層받침이 있다.

上層은 圓形으로 되어 있으며 下部分은 八角으로 되어 높이가 약 三寸이다. 原形에 가까운 十六瓣 仰蓮花가 새겨졌으며 그 위에 立佛石으로 推定되는 巨石이 半切되어 꽃혀 있고 그 半은 現在 그 옆에 떨어져 있다. 面을 자세히 알 수 없다. 中央下部 四角形 擦柱는 幅一尺·高一·四五寸의 크기다. 연계 攪破되었는지 알 수 없다. 竹山一帶에서 例를 찾아볼 수 없는 조각품으로 보인다. 花崗岩製.



安城竹山の遺蹟分布